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사막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사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식물이나 동물이 살기에는 매우 열악하죠.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새 (hummingbird-벌처럼 작고 날개 짓이 빠르다 해서 벌새라고 불립니다) 이고 다른 하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벌쳐(vulture-콘도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입니다. 벌쳐는 사막에서 죽은 고기만을 찾아 다니고 결국 그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벌새는 냄새나는 죽은 고기는 쳐다 보지도 않고, 대신 사막에서 자라는 가지각색의 꽃을 찾아 거기서 꿀을 먹습니다. 벌쳐는 있었던 것, 죽어서 생명이 없는, 과거의 것을 먹고 삽니다. 반면에 벌새는요 지금 있는 것, 신선함과 생명이 있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둘다 사막에 살고 있지만 각각 그들이 찾는 것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결국엔 방탕함과 어리석음으로 향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절제하며, 지혜를 좇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3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지혜롭게, 둘째, 절제하며, 셋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 세가지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비추어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이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5 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arefully, diligently walk).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아끼라” 는 헬라말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그 뜻이 ‘건져 올린다, 구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혹은 낚시로 건져 올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지요.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잘 와 닿았을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남선교회 성도님들과 게잡이(crabbing)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 이야기인데, 일년 중 이맘때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때를 맞춰서 물이 빠진 시간에 가면요, 게를 통발로도 잡고, 빨래줄에다가 닭다리를 묶어서 잡기도 했는데,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게가 기어다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물속에 아무리 게가 많아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와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월은 다른 말로 ‘시간, 혹은 기회’ 입니다. 수 없는 기회와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잘 잡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거기에는 어부였던 베드로도 있었잖습니까! 물때를 모르거나, 고기잡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거죠! 고기잡는 법에 있어서는 아마주어가 아니라 프로잡아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서는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나 큰 물고기가 153 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원래대로라면, 큰 물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잡혔다면 그물이 찢어졌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10 년이상 그 일을 계속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을 해요. 그것이 공부든 비즈니스이든 말이죠. 해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성공적인 학업이나 업적을 이뤄갑니다. 그런데요, 분명 전문가가 다 되었는데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만으로는 일들이 잘 안풀리는 때가 많아요. 마치 어부를 포함한 7 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순간에는 “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로마제국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때 서로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일종에 암호였던거죠. 그것이 바로 물고기 마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차 뒤에 보면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죠. 헬라말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알파벳 5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비록 광야같은 세상에 살고, 욕망의 바다 위에 사는 것 같은 우리일찌라도 그 가운데, 물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를 건져 올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또 교인은 교회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건져 올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수많은 기회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문해 봐야해요.

들째로, 우리들은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쳐 버리기 십상입니다. 18 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되지요?” 혹은 “목사님,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21 세기를 살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요. 또 “한잔쯤은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알코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방탕이라는 헬라말이 놀라워요! 여기에는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소티아]는 두 단어가 합성된거예요. [아]는 부정적 불변사입니다. “-아니” 라는 뜻이죠. [소티아]의 기본형은 [소조]인데, 이 말은 구원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방탕한 길이 사람들을 외로움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잠깐 동안 고통을 잊게 만들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 장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술 마신다, 안 마신다는 논쟁을 넘어서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써 세상 충만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들 알아서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의 유익을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의식하며 사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당연히 어렵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있거나, 다른 세상의 것에 빠져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술의 힘으로 혹은 다른 어떤 것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해서 절제란 늘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 절과 20 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든지 감사한 마음을 결코 잃지 말라고 권고하시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감사함을 잊어버리죠. 빌립보서 4 장 11-12 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입니다)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처한 “내 삶의 태도” 입니다.

하루는 어떤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합니다. “삶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방 한칸에 아홉명이랑 같이 생활하며 지냅니다. 랍비여, 어떻게 하면 저의 삶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그 방에 두고 같이 지내십시오.” 그 사람은 이런 말도 안되는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랍비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 보다 훨씬 더 화가나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염소는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염소를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뻐 뛰며 말합니다. “선생님, 삶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즐깁니다. 이제는 염소가 집에 없습니다. 단지 저희 아홉명 뿐입니다.”

감사란, 삶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한 눈으로 보면 감사한 일들뿐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눈으로 삶을 보면 감사한 일도 감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절제 감사한 삶은 단지 교회 앉아 있는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에, 오늘 말씀에 물고기를 떠 올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선택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붙잡게 되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들어올리고 신앙고백을 붙잡게 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순종은 결국 복되고 즐거운 길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웨어필드 그레이스 연합감리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